

대학생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김효진
동국대학교 파라미타칼리지

A Study on Developing Communication Courses to Enhance Undergraduates' Core Competence

Hyo-Jin Kim
Paramita College, Dongguk University

요 약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정보사회화 흐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있어 꼭 필요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발에 관한 과정과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관한 콘텐츠에는 강의개요, 강의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방법, 주차별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여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핵심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 및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구성원의 핵심역량으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주제어 : 정보사회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역량, 핵심역량,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발

Abstract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as well as the trend of becoming information society where all different cultures become convergent, communication competence is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refore, universities are making efforts to open and operate a related curriculum regarding communication competence as the most needed core competence in cultivating competitive men of ability. Accordingly, this study is going to suggest courses and detailed contents for developing communication courses to enhance undergraduates' core competenc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 subjects include the course outline, objectives, manner of lecturing, evaluation, weekly learning topics, learning objectives, and learning contents, and so on. This study will lay the ground for cultivating undergraduates' communication skills effectively and improving their core competence further to lead their college life sound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Also, this study will form a field of cultivating competent persons who can create social value through systematic education on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is the most emphasized as core competence that the members of universities or societies should be equipped with.

Key Words : Information Societ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Core Competence, Communication Course Development

Received 24 August 2016, Revised 1 Octo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Published 28 Octo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o-Jin Kim(Dongguk University)
Email: hyo-jin88@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기술혁명과 세대 간, 문화 간 통합에 따른 구조의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1].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많은 대학들은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 지식정보사회에 발맞출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핵심역량 증대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핵심역량이란 직무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높은 직무성과를 위해 발휘되는 능력을 뜻한다[2].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을 창출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개발은 교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많은 나라에서도 초·중·고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에 적합한 교과목 운영과 체계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SCANS(1991)[3]은 미국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기초스킬을 조사한 결과, 말하기 듣기와 같은 기초적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능력인 고차원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역량모델 조사에서도 듣고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영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Johnstone & Watson(2004)[5]의 연구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리 능력, IT능력, 타인과 함께 일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생들에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대학생활의 학습과 조직생활을 함께 있어 필수불가결한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들이 서로 상호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6]. 커뮤니케이션은 사회현상의 기본을 형성하는 근간이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면 사람들 간 정보교환이나 정서교류, 문화 간 세대 전이가 불가능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가 다인종 사회가 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한 빠르게 변화 하고 있다. 즉 다양한 대상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목적을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양적 질적으로 급증하는 정보에 노출되어 개인 생활 뿐 아니라, 조직 내의 생활에서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대학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개인의 발전 및 조직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많은 기업과 조직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진행 및 소통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대학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영역 중 말하기와 듣기의 경우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피치 문화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스피치를 기초로 한 표현능력이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과 일본의 대학들은 표현력과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 교양과목으로 읽기 및 쓰기 관련 강좌들을 개설해 왔다[7]. 미국 대학들의 경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공공 스피치, 토론을 중심으로 한 말하기 교육을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대학의 경우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글쓰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7].

이와 같은 외국대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대학에서도 읽기와 쓰기, 사고의 표현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중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말하기, 듣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이론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및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구성원의 핵심역량으로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교과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적용의 과정을 습득하여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커뮤니케이션 역량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 로 공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끼리 서로 느낌과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며, 말이나 글, 그 밖의 소리, 표정, 몸짓 등으로 이루어진다[8]. Rogers & Kincaid(1981)[6]은 커뮤니케이션을 상호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관점과 대인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간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밖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9].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조직 및 사회집단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통해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되고 과정이 복잡하여 그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근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융합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대상과 방법, 목적 등이 다양화되어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McKay et al.(1995)[10]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기본과 고급의 두 수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기본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은 청취, 자아노출, 표현으로 정의하였으며, 고급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은 신체적 언어, 준 언어와 메타메시지, 교류분석, 숨겨진 의도 이해, 정확하게 말하기, 문화차이의 이해로 정의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개인들 간 차이가 있다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판단해왔다. 사람들은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각자 다른 행동을 보이며(McCroskey, 1987)[11] 이러한 행동의 많은 부분은 개인의 능력에 귀인한다[12].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고난 속성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해 가는 측면이 더 강하다[11]. 커뮤니케

이션은 문화와 맥락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상황, 목적, 대상에 따라 필요한 역량도 달라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2.2 역량기반 교육과정

최근 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지식의 단순한 암기를 넘어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역량은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협의의 의미를 넘어 현대사회의 복잡한 삶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포괄적 능력을 지칭한다[13]. 또한 역량이란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능력이며(Boyatzis, 1982)[14], 직무성공을 위해 안정적으로 발휘되는 능력을 총칭한다[15].

최근 내용지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은 기존의 지식위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전환시키고 있다[16].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이 내용지식에서 역량기반으로 개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ECD의 주요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의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을 통해 증진시켜야 할 역량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방법, 교육주체와 교육의 질 관리 방법, 지식의 측면에서 과거의 학문중심 교육과정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량기반 교육은 이론과 실제 수행력이 함께 연계되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차별적이고 이의 실질적인 적용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 수행의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대학교육 개혁과 개선에 있어 유용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대학의 경우 역량기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구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17].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역량기반의 교과목 개발 및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교과목 콘텐츠 개발

3.1 학습자 연구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차별화된 학습 콘텐츠 제작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 콘텐츠 개발을 위해 먼저 학습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 연구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적성, 인지양식 및 학습양식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다[19,20].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첫째, 학습자의 인성, 적성, 사전지식 등과 관련된 학습자의 특성, 둘째, 학습자의 학습행동과 의도, 셋째, 학습자의 강의 수강 목적 및 적절한 강의시간 등의 학습자 요구사항, 넷째 학습자의 설문과 평가를 통한 학습성과를 말할 수 있다[19,21].

교과목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습자 연구를 위해 동국대학교의 공동교양과목인 ‘동국인의 자기계발’ 수강생 200명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교과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의 <Table 1>과 같이 발표방법(31.0%), 대인관계(23.5%), 보고서 작성방법(22.5%), 인터뷰 방법(13.0%), 의사결정 방법(6.5%) 순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의 교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학생들은 말하고 듣고 쓰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Learner Demand Survey Result

Subject	Number	Frequency
Presentation Method	62	31.0%
Personal Relation	47	23.5%
Report Method	45	22.5%
Interview Method	26	13.0%
Decision Making Method	13	6.5%
The Others	7	3.5%

3.2 직무 및 과제분석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정의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직무 및 과제는 대학 및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이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여 조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설계

4.1 학습목표 명세화

학습목표 명세화는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수업목표 및 학습성과를 뜻한다. 이는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수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수행하게 될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명확한 지침을 준다. 또한 학습목표에 기술된 사항은 평가전략과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19,20]. 이러한 학습목표를 명세화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
- 둘째, 커뮤니케이션의 실무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 셋째,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

4.2 평가도구 설계

학습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도구를 설계하였다. 평가도구로는 목표의 성취도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출발점행동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 진도확인검사 등이 있으며, 평가의 방법에 따라 지필검사, 실기검사, 관찰 등이 있다[19,21]. 평가도구 설계를 위해서 성적평가의 평가방법을 수립하고, 평가방법 별 평가내용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평가도구 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출석 2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20%, 과제 30%로 규정하였다. 세부평가 배점 내용을 살펴보면 출석은 결석 1회시 3점 감점, 지각 1회시 1점 감점, 4회 이상 결석 시 F로 규정하였다. 또한 과제는 개인과제와 팀과제로 구분하였으며, 팀과제 진행 시 발표 및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며 단 수업태도 불량 시 감점하기로 하였다.

4.3 수업운영 방법 수립

수업운영 방법의 수립은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수 학습의 내용과 과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때 수업의 운영방식이나 계획을 이루는 구체적인 활동을 선정하여야 한다[19,20]. 수업운영 방법 수립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수업형태, 수업방식, 수강요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수업 운영방식은 교수강의를 중심으로 학습내용에 따라 수강생들 간 자유로운 토론 및 발표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본 교과목은 3학점 교양 과목으로서 재학생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4.4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계열화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계열화는 교수가 학습자에게 가르칠 학습내용의 순서와 학습내용의 조직을 규명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학습내용이나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지 또한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로 제시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19,20,21]. 프로그램의 구조화 및 계열화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주차별 학습주제 및 학습목표, 학습내용을 학습자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1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수업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11주차부터 15주차까지의 수업은 이론을 적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실무적인 내용의 강의가 실시되며, 수강생들 간 토론 및 발표수업이 주로 실행될 것이다.

4.4.1 1주차

1주차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대한 수업 목표와 강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구체적으로 주차별 세부 강의 일정에 대한 소개와 성적 및 과제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한다.

4.4.2 2주차

2주차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및 효과성 진단에 대해 살펴본다.

4.4.3 3주차

3주차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방법과 연구모형에 대해 설명하여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접근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및 그 방향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4.4.4 4주차

4주차 수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요소 및 방해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4.5 5주차

5주차 수업에서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인간 영향력 행사의 과정을 살펴봄, 진정한 공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4.6 6주차

6주차 수업에서는 개인, 집단,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개인, 집단,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인, 집단, 조직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4.7 7주차

7주차 수업에서는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개인과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 고려요인 및 윤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4.4.8 8주차

8주차 수업에서는 2주차부터 7주차에 강의된 수업 내용 전반을 토대로 중간고사가 이루어진다. 상기 수업 내용에 대해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포함)유형의 시험이 이루어진다.

4.4.9 9주차

9주차 수업에서는 조직생활에 있어서 문화차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문화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된 전략 및 방법을 설명하여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4.10 10주차

10주차 수업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진화와 다양성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차별화된 전략 및 방법을 설명하여 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4.11 11주차

11주차 수업에서는 문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의 정의와 목적, 보고서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서의 형식 및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4.4.12 12주차

12주차 수업에서는 올바른 스피치 방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피치의 필수요소 및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을 설명하고 대화방법, 질문과 피드백, 경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4.13 13주차

13주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른 협상방법, 설득방법, 토의와 토론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협상, 설득, 토의와 토론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

4.4.14 14주차

14주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청중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프레젠테이션의 준비과정과 발표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4.15 15주차

15주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면접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면접 준비 절차와 효과적인 면접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4.4.16 16주차

16주차 수업에서는 9주차부터 15주차에 강의된 수업 내용 전반을 토대로 기말고사가 이루어진다. 상기 수업 내용에 대해 객관식, 주관식(단답형, 서술형 포함)유형의 시험이 이루어진다.

5. 결론

최근 글로벌화의 급진적인 진행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소양이 되고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통해 정보와 감정을 교류하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지식정보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경쟁력 있는 인재의 핵심역량 중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있어 꼭 필요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개발에 관한 과정과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에 관한 콘텐츠에는 강의개요, 강의목표, 강의방법, 성적 평가방법, 주차별 학습주제,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은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이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여 대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핵심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이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운영의 형태를 벗어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유연성 있게 배정한 본 교과목의 콘텐츠는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다소 취약한 말하기와 듣기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학습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은 물론 발표능력, 의사소통능력, 의사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협업학습을 통해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수업은 일반적으로 신문방송학, 심리학, 사회학과 등의 전공수업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교과목은 모든 재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교과내용의 콘텐츠 또한 모든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및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구성원의 핵심역량으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이다.

REFERENCES

[1] Castells, M., *Flows, Networks, and Identities: A Critical Theory of the Information Society*. In M. Castells, R. Flecha, P. Freire, H A. Giroux, D. Macedo, & P. Willis(Eds.), *Critical Education in the New Information Age*. Lanham : Rowman & Littlefield, 1999.

[2] Spencer, L. & S. Spencer, *Competence at Work :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93.

[3]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SCANS), *What Work Requires of School : A SCANS Report for America 2000*. US Department of Labor, Washington, DC, 1991.

[4] Wook-Hee Jang & Sang-Ho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Competencies and Employment Outcomes", *The Journal of Human Management Research*, Vol. 33, No. 1, pp. 31-59, 2009.

[5] Johnstone, B. & A. Watson, "Participation, Reflection and Integration for Business and Lifelong", *Journal of Workplace Learning*, Vol. 16, No. 2, pp. 53-59, 2004.

[6] Rogers, E. & D. Kincaid, *Communication Network: Toward a New Paradigm for Research*. NY: Free Press, 1981.

[7] Shin-Il Han, Young-Sin Kwon & Jung-Heun Joo, "Comparative Analysis of General Education of America's Top 10 National Universities 2002",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Vol. 13, No. 1, pp. 91-119, 2003.

[8] Fassett, D. L. & J. T. Warren, *The Sage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Instruction*(Ed.). Los Angeles, CA: Sage. 2010.

[9] Friedrich, G. W., "A View from the Office of the SCA President", *Communication Education*, Vol. 38, No. 2, pp. 297-302, 1989.

[10] Mckay, M., M. Davis & P. Fanning, *Ma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Oakland, CA: New Harbinger, 1995.

[11] McCroskey, J. C.,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bury Park, CA: SAGE, 1987.

[12] Norton, R. W. "Foundation of a Communication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ol. 4, No. 2, pp. 99-112, 1978.

[13] Bolton, T. & T. Hyland, "Implementing Key Skills in Further Education: Perception and Issue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Vol. 27, No. 2, pp. 15-26, 2003.

[14] Boyatzis, R.,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 -

- Interscience, 1982.
- [15] Jae-Ho Park, "A Study on Core Competency of Leaders in Venture Business-Focusing on Core Competency and Executive Coaching", The Journal of Young Nam Region Development Research, No. 32, No. 0, pp. 23-50, 2003.
- [16] Kwang-Min Kim, "The Attractiveness and Limit of 'Competency 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0, No. 2, pp. 171-197, 2009.
- [17] Min-Jeong Park, "A New Approach to Curriculum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Competence - based Curriculum", The Journal of Education Process Research, Vol. 26, No. 4, pp. 173-197, 2008.
- [18] Seong-Ik Park, Sang-Eun Lee & Ji-Eun Song, "Major Factors Influencing Effective On/Offline Learning on the Blend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5, No. 1, pp. 17-45, 2007.
- [19] Jeong-Man Lee, Introduction Education, Hac Ji Sa, 2016.
- [20] Seok-Beom Yoon & Eun-Young Jang, "A Development of Creative Capstone Design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5, No. 4, pp. 15-20, 2014.
- [21] Young-Ae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15-22, 2011.

김 효 진(Kim, Hyo Jin)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 학사)
- 2004년 2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과라미타칼리지 초빙교수

- 관심분야 : 서비스마케팅, 유통관리, 소비자행동
- E-Mail : hyo-jin88@hanmail.net